



김진철 교수의 신나는 실전 골프

〈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교수〉

심한 내리막은 퍼터 앞·뒤쪽으로

■ 경사진 그린 퍼팅

환경골프고 출신 지존 신지예(21·미래에셋)가 지난 24일 끝난 L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올해의 선수'를 아쉽게 오초아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하지만 LPGA 첫 데뷔한 신지예는 상급왕·다승왕·신인왕 3관왕을 거머쥐는 놀라운 기량을 발휘했다.

신지예는 LPGA 챔피언십 대회를 마친 후 "퍼트가 좋지 않았고 운도 따르지 않았다. 버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지예는 17번 홀에서 결정적인 실수로 다잡았던 '올해의 선수'를 놓쳐버렸지만 그의 말대로 여러 차례의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한게 패착이라고 실토했다.

'골프 지존' 신지예도 결국 퍼팅에 무너진 것이다. 골프에서 퍼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이번 주에는 경사진 곳에서의 퍼팅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김진철 교수는 "사실상 퍼팅은 오랜 연습을 통한 자기만의 감각으로 샷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면서 "하지만 초보자 혹은 '팔드 출전'이 많지 않은 아마추어들은 기본적인 자세와 요령을 먼저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사진 그린에서 라인을 판단하는 요령과 오르막·내리막 퍼팅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 경사도를 의식하며 라인을 판단하라.

가장 기본적인 라인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린 위에 놓인 볼 뒤에서 자신의 클럽을 눈높이로 들어 올린다. 볼과 클럽을 일치시킨 후 한쪽 눈(주시)으로 바라본다. 볼과 클럽의 일치선을 홀컵까지 연장해 보면 홀컵이 연장선의 오른쪽 혹은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홀컵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오르막,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 오르막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점을 감안해 퍼팅을 해야 한다. 볼과 홀컵이 일



그린에 올라 라인을 살필때 클럽을 들어 볼과 홀컵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오르막 경사도를 알 수 있다.

천천히 살펴보는 습관 처음부터 길들여야

오르막은 홀컵 1m 뒤

내리막은 1m 앞 겨냥

치하면 스트레이트로 처리하면 된다.

다음은 볼과 홀컵까지의 거리 측정이다. 바로 자신의 걸을 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후 그에 맞는 퍼팅의 세기 등을 조절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감각으로 몸에 익혀두는 게 좋다. 또 필드에 나가기 전 30분~1시간 정도 연습그린에서 보폭과 퍼팅을 익히고 라운딩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린에서 구르는 볼은 경사나 굴곡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경사진 쪽으로 볼은 구르고, 굴곡에 따라 볼의 속도가 빠르거나 느려지기도 한다.

대충 훑어보는 습관은 버리고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처음부터 길들여야 한다. 잘못 판단하거나 생각없는 퍼팅으로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경사는 그린에 걸여 올라가기 전에 살펴봐야 한다. 페어웨이를 걸을 때에도 그린 바다의 경사나 잔디결 같은 전체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린에 올라가서는 자세를 낮게 숙여서 전체를 둘러보고 경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그린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볼과 홀을 연결하는 라인을 살펴거나 그 연장선 선 위에서 관찰하는 것도 좋은 요령이다.

▲ 오르막 퍼팅은 힘있게 밀어 친다.

평지보다 힘을 줘서 퍼팅하는 것은 기본이다. 거리를 너무 의식하면 소심해서 홀컵에 닿기 전에 멈추는 짧은 퍼팅이 되기 쉽다.

오르막에선 잔디도 대부분 낮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힘있는 퍼팅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오르막 퍼팅은 또 홀컵이 실제로 1m 정도 뒤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퍼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홀컵 뒤편의 가장자리를 겨냥해 퍼팅하는 게 좋다.

▲ 내리막 퍼팅은 컵 앞쪽을 겨냥한다.

내리막 만큼 섬세하고 신경써야 하는 퍼팅도 없다. 조금만 힘을 주어도 홀컵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리막 라인에서 약하게 볼을 치는 게 필요한데 그림의 힘 조절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힘 조절 또한 여러차례의 경험으로 손목 힘조절을 익혀야 한다.

내리막은 오르막과 반대로 홀컵이 실제로 1m 정도 앞에 있다 생각하고 치는 게 좋다. 그만큼 힘을 줄여 치라는 것이다. 결국 퍼팅은 위와 같은 요령으로 자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오르막 퍼팅에선 홀컵이 실제로는 뒷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리막 퍼팅에선 홀컵이 앞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힘조절해서 치는 게 중요하다.



심한 내리막에선 퍼터헤드 중심으로 치지 말고 앞쪽이나 뒷쪽으로 치는게 힘을 줄이는 방법이다.



서 자신의 퍼팅감각에 맞고 홀인 확률이 가장 높은 라인을 익혀두는 것이 그린 공략의 지름길이다. /사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추에이션 골프

볼과 홀 사이 모래·돌 치워도 된다

퍼트 라인 위 잔디 뜯으면 2패널티

Q : 발레를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멍이 퍼트 라인 위에 있어 수리를 하였을때.

A : 새가 만들어 놓은 구멍은 위원회(경기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측에서 고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리하지 않으면 구제조치를 한다. 하지만 위의 상황은 골퍼가 직접 수리를 했기 때문에 퍼트 라인의 접촉, 또는 개선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2패널티를 부과한다.

Q : 자신의 볼과 홀 사이에 흩어져있는 모래를 쓰고 있던 모자로 치웠을때.

A : 모래와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루스 임페디먼트(물·나뭇잎 등 자연물)가 된다. 따라서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지 없었는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치울 수 있다. 퍼트 라인 위의 루스 임페디먼트를 모자나 수건으로 털어내는 것은 가

능하나 퍼트 라인을 세계 눌러서는 안된다

Q : 퍼트 라인 위에 몇가닥의 잔디가 있어 볼이 구르는데 방해가 된다 싶어 잡아 뜯어냈을때.

A : 퍼트 라인의 접촉 금지, 또는 퍼트 라인의 개선 금지에 위반되어 2패널티를 부과한다. 퍼트 라인에 접촉해도 되는 경우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할 때, 볼에 어드레스 할 때, 거리를 잴 때, 볼을 집어 올리거나 리플레이스 할 때, 볼 마커를 누를 때 그리고 볼 마커나 사용된 홀의 자국을 수리할 때이다.

Q : 퍼트 라인 위의 서리를 수건으로 닦아냈을 때.

A : 서리와 이슬은 캐주얼 워터 헤더로도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거나 치울 수가 없다. 서리나 이슬을 털어 내거나 닦아냈을 때는 퍼트 라인의 개선 또는 접촉의 행위가 되어 2패널티를 부과한다.

금주의 골프용품

안정된 스윙 도와 비거리 향상

C-909 드라이버

대형 헤드와 장착 샤프트를 매치했으며 수많은 필드 테스트와 컴퓨터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실하게 볼을 포착해 주는 최적의 중심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휘두르기 쉬운 대형 헤드이면서 중심거리는 짧은 38mm이다.

샷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심심도는 38.5mm로 깊다. 그리고 비거리와 컨트롤 성능을 양립하고 적절한 백 스핀량을 낚는 중심의 높이는 21mm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최적의 중심위치설계로 대형헤드와 장착 샤프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냈으며 포착력이 좋은 드라이버로 더욱 높은 비거리와 안정성을 실현했다.

헤드 후방을 높게 디자인하여 크라운이 페이스 정면 대비하는 것처럼 보여 어드레스 때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어드레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착 샤프트 이외에 부트러온 테이크 백과 안정된 스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취재협조:골프프라이즈 062-368-780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서티그룹캐피탈(주)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단위)

대출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사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전 화 상 담 010-7167-3838

대한민국 최초! 무료 음성커뮤니티, 탄생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로 내야만 사용하던 대화서비스!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0
회원가입비: 0

일만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도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그대로일 뿐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1666-5425

문의전화: 1588-3533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 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군민주말(광주·전남 지역)	지리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남구	지리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군민상가(광주·전남 지역)	지리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남구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토지(광주·전남 지역)	지리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남구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주택(광주·전남 지역)	지리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남구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